

가나 경제 및 에너지 동향 (7.9.-15.)

1. 경제 및 에너지

가. 소비자물가지수 19여년 만에 최고치 기록

- 가나 통계청(GSS)에 따르면, 6월 소비자물가지수(CPI)가 전월(27.6%) 대비 2.2%p 상승, 2003.12월 이후 최고치인 29.8%를 기록하였으며, 주요 물가 상승 요인은 교통비(41%)인 것으로 집계됨.
- 식료품 및 비식료품 물가상승률은 30.7% 및 29.1%를 각각 기록했으며, 수입품과 국산품 물가상승률은 각각 29.2% 및 31.3%를 기록함.

나. 가나 재무장관, 7.25.(월) 국회 앞 예산 중간점검 보고 예정

- 아베나 아사레(Abena Asare) 재무차관은 켄 오포리아타(Ken Ofori-Atta) 재무장관이 당초 7.13.(수) 예산 중간점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, IMF 협상단의 가나 방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동 일정을 7.25.(월)로 연기하게 되었다고 발표함.
- ※ 2016년 공공재정관리법(Act 921)에 따라, 재무장관은 매 회계년도 마다 7.31.까지 국회에 예산 중간점검 보고서 제출 필요

다. 가나 중앙은행에 금 우선매수권 부여

- 마하무두 바우미아(Mahamudu Bawumia) 부통령은 7.14.(목) 가나 세디화(Cedi)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채굴된 금이 해외로 수출되기 전 필요한 양만큼 매입할 수 있도록 가나 중앙은행(BOG)에게 우선매수권(first right of refusal)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함.
- 바우미아 부통령은 이번 조치를 통해 외환보유액 확대 및 세디화 가치 하락 억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, 국내에서 생산된 금에 대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국제공인 인증서(런던귀금속시장협회(LBMA)의 품질 인증 등) 획득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함.

라. 정부-노조 간 기본급의 15% 생활보조수당(COLA) 지급 합의

- 이그나티우스 아우아(Ignatius Baffour Awuah) 고용노동부 장관은 7.14.(목) 정부와-노조 간 합의를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기본급의 15%를 생활보조수당(COLA)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함.
- 동 합의는 교원노조 등의 생활보조수당 지급 요구와 잇따른 파업* 속에서 세 차례 협상 끝에 합의되었으며, 7.1.(금)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임.
- * 교원노조, 가나의사협회, 공무원노조 등은 현 경제 상황을 이유로 가나 정부에 기본급의 20%를 COLA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교원노조가 7.4.(월)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으며, 여타 노조도 파업 동참을 예고함에 따라 정부-노조 간 긴급 협상이 개시된 바 있음.

2. 개발협력

가나 정부, 관광 부문 중소기업에 1천만 불 보조금 지원 발표

- 아쿠포아도 대통령은 7.6.(수) 세계은행의 지원 하에 가나 관광개발계획(GRDP)의 일환으로 관광·숙박·창작예술 분야 관련 중소기업(SMEs)에게 1천만 불 규모의 보조금(grant)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함.
- ※ 동 지원금은 세계은행이 지원하는 4천만 불 규모 국제개발협회(IDA) 무상원조의 일부로, 가나 정부는 이를 통해 관광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광 환경 개선, 관광지 개발, 관광산업 지원 및 사업 관리를 추진 예정임.
- 이에 따라 올해 관련 중소기업 1,500개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며, 총 보조금의 60%는 여성기업에 할당될 예정임. 끝.